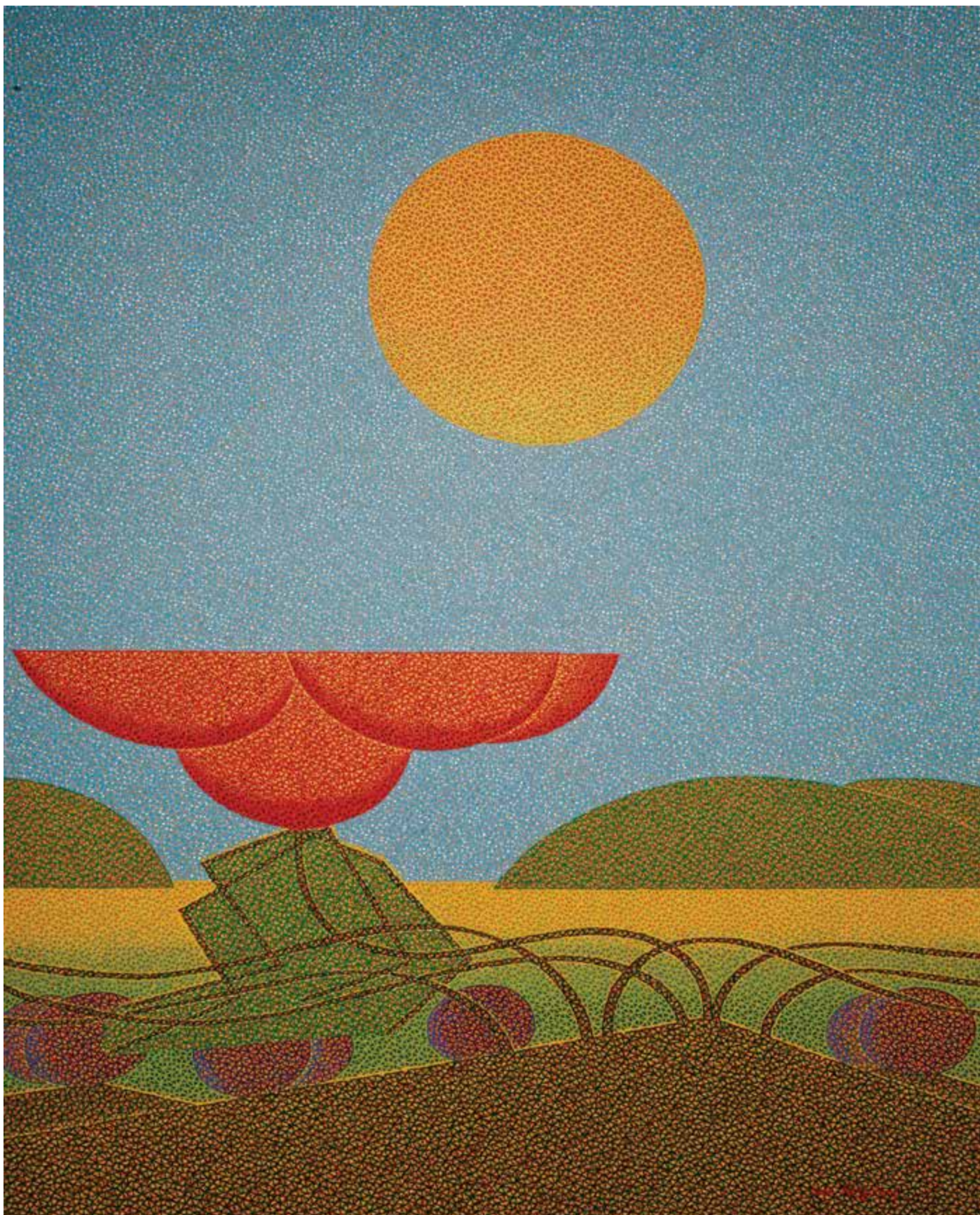


VOL. 41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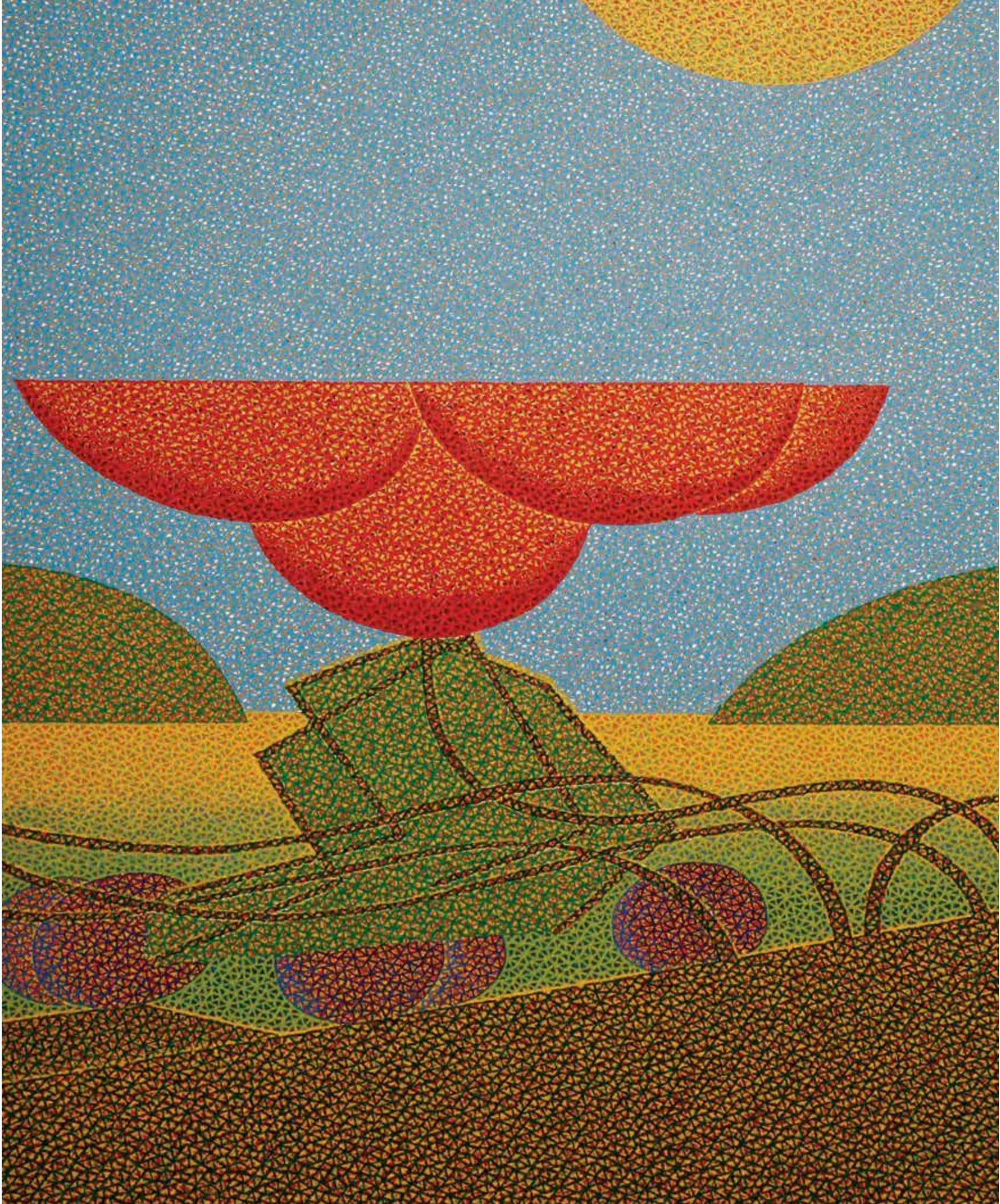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Gyeongnam Mecenat



CONTENTS

발행인 김태한
발행일 2026.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석수근
진행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동촌소고 東村小考
2008, Oil on canvas, 162×130cm

Cover story

박강정 화백은 1943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하여 60여 년 동안 일관된 주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며 엄숙하리만큼 분명한 자기 절제 의식과 독특한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이는 전업작가다. 그의 〈동촌소고〉시리즈는 어릴 적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고향 '동촌마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린 작품으로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색감 속에는 망향가를 불러야 할 만큼의 아련함이 녹아있다. 또한 그가 추구하는 극도의 정밀주의와 성실함은 작가의 치열한 예술정신을 보여준다.

스페셜 테마	04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예술'
아름다운 동행	08 12	• (주)대중이앤에프 x 세종국악회관 • (주)MSECM x 제나
메세나 인터뷰	16 20	• 지역과 함께,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현대위아 - 양태규 전무 • 불광불금의 의사 혹은 예술인 - 윤영길 원장
지금 경남예술	24 28	• 45년, 연극에 미친 벼수들 - 극단 벼수골 • 경남에 울려 퍼진 천상의 하모니 - 경남국제합창제
문화공간	30 32	• 문화를 함께 짓고, 예술로 마음을 잇는 북함문화예술공간 - 거제문화지음 • 오늘, 양산을 더 특별하게 - 숲에서, 일상 속 작은 쉼표 - 오늘의 추억, 별 다섯 개, 영화공장 - 예인3512, 나만의 감성을 빛다
포토포엠	36	•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 Photo by. 주은철
메세나 소식	38 39 40 41	• 2026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정기총회 개최 • 2026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시행 • 민간 후원으로 키우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 • ESG+메세나
인조이 컬처	42 46 48	•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 - W. A. Mozart • 햄릿, 사유의 늪에 가라앉다 • Player's Playlist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예술

M
O
D
U

A
R
T

장애예술은 장애인이 예술의 주체가 되어 창작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장애예술은 전문성을 띤 예술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예술이 예술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자신의 창작활동이 예술로 인정받고 창작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길 원한다.

인간의 중요한 철학은 각 개인이 가능한 것을 최대한 풍부하게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권리가 보장돼야 사회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다. 창의성은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창의성이 존중되고 활성화되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 보장(Katz, 1995)이기에 장애인의 예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



장애예술, 모두예술

다른 나라에서 장애예술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영국은 한계가 없는 예술(Unlimited Arts), 미국은 특별한 예술(Very Special Arts), 일본은 가능성의 예술(Able Arts)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예술을 모두를 위한 예술(Arts for All)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장애·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즐기는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장문원 산하 시설인 극장과 전시장 명칭을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장애예술이 추구하는 것이 모두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예술을 모두예술(Arts of All)로 인식하면서 모든 장애유형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이 선보이고 있다.

1) 장애예술 배경과 실태

장애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에 2009년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설치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설립되면서 201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구성되었다.

2015년 장애예술을 위한 공적기관인 장문원이 창립된 후 다양한 장애예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기반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2023년), '장애예술인 의무공연전시제도'(2024년)가 마련되었다.

'2021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창작지원 확대가 70.5%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2024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창작지원금 부족(26.7%), 연습·창작공간 부족(19.3%),

공간 대관 어려움(15.6%) 순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들은 창작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외의 장애예술

영국예술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장애평등계획(2007~2013년)으로 예술단체에 장애인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예술조직 VSA(Very Special Arts)를 통해 장애인에게 동등한 예술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일본은 1970년대부터 'Able Art 운동'이 전개되면서 많은 장애인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장애예술정책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교육과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왔다.



배리어프리 공연

1) 문화시설의 접근성

문화시설은 이동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향유를 위해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감각적 접근성,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서비스 접근성이 있다.

장문원은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접근성의 개념과 원칙,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 정리한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2024)> 발간에 이어 올해는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 48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 연극 <젤리피쉬>의 성공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인 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다. 비장애 배우들의 크리핑 업(crippling up) 즉, 배우가 장애를 흉내 내며 연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했던 부정확한 재현, 고정관념의 재생산, 그리고 장애배우들의 기회 박탈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두예술극장 기획공연으로 연극 <젤리피쉬>를 제작하여 2025년 3월 무대에 올렸다. 다운증후군 여성의 사랑과 결혼이란 평범해야 할 삶이 금기처럼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사랑을 완성

시켜가는 연극의 주인공을 다운증후군 여성 백지윤 배우로 캐스팅하여, 가짜 연기가 아니라 어센틱 캐스팅(Authentic Casting)으로 진짜 연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프롬프터를 무대 위 등장 인물로 드러내는 연출을 통해 발달장애 배우에 대한 지원과 조력을 숨기지 않고, 연극적 장치로 전환하여 차별성을 보여줬다. 무대 위 배우와 무대 아래 관객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공연'으로 주목을 받았다.

<젤리피쉬>가 2026년 1월 제62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월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백상연극상을 받아 양대 연극상을 거머쥐는 기적이 일어났다. 연극 전문가들이 <젤리피쉬>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발달장애로 인한 배우의 신체성이 장애가 아닌 새로운 미학으로 인식되었고 관객들도 장애 몸에서 뿜어나오는 배우의 내러티브에 공감하였던 것이다.

맺으며

대학로에 있는 장문원 건물명은 '이음센터'인데 그 센터를 마련할 때 일본 '하나센터'로 견학을 갔다 와서 샘플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로 이음센터를 보고 일본 관계자들이 '어떻게 시내

한복판에 장애인문화예술 시설이 있느냐'고 놀란다. 그들에게 모두 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을 보여주면 한국은 역시 문화 강국이라고 부러워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장애예술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앤드류 델방코(Andrew Delbanco)는 예술 내러티브의 두 가지 목표는 첫째, 소망을 주어야 하고, 둘째, 사회를 응집시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예술이 바로 장애예술이다. 장애예술인은 독특한 창조적 자산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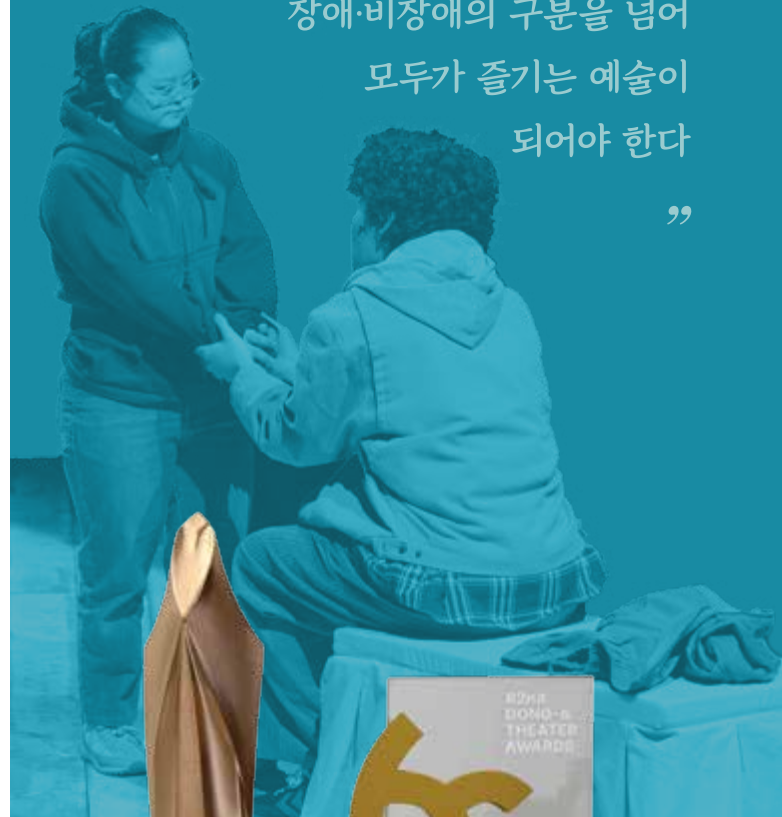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장애예술의 가치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 예술'로 정한 만큼 그 가치 실현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사랑받는 'K-모두예술'이 될 것이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방귀희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겸임교수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문화훈장 옥관 수훈(2023)

장애·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즐기는 예술이
되어야 한다



친구 아이가!

46년의 우정,
5년의 동행으로

01

(주)대종이앤에프 × 세종국악회관

박상민 대표이사

이경원 원장

그런 친구가 있다. 수년 만에 만나도 마치 몇 주 전에 만난 것처럼 어색함이 없는 친구. 그리고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잘 살아왔다.’ ‘괜찮은 인생’이다 자부해도 좋을 만큼 오래 지속되는 우정은 흔치 않다. 역지로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소중하고 귀한 친구의 인연이 자연스레 예술단체와 기업의 결연으로 이어졌다. 부럽고도 부러운 관계이다. (주)대종이앤에프의 박상민 대표와 세종국악회관의 이경원 원장, 두 사람의 우정 어린 동행 스토리를 전한다.



33년 마산 토박이 국악 단체, 퓨전 국악의 선두주자 ‘세종’

■

30여 년 전 국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남에 민간 국악 단체가 문을 열었다.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는 세종국악회관이다. 세종국악회관의 이경원 원장은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인 조순자 선생의 제자이다. 국악을 전공한 그녀는 조순자 선생과 함께 ‘가야국악회관’을 세우고 국악 교육의 뜻을 키웠고, 그러던 중에 2003년 조순자 선생이 가곡 보유자로 지정돼 세종국악회관과 가곡전수관으로 분리가 되었다. 세종국악회관 이경원 원장은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며 자신이 품었던 국악의 뜻과 꿈을 피워갔다. “저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국악, 청소년에게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악을 하고 싶었어요. 국악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국악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양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연극, 비보잉,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 단체들과 융합하는 무대가 탄생했고, 퓨전 크로스오버 국악 공연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경남대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난 김민재 사무국장은 20년 전부터 이 원장과 함께 무대를 만들며 이제 ‘세종’의 공연을 전담하고 있는데, 당시 쉽지만은 않았다. 지금은 그야말로 ‘퓨전 국악’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즈음에는 아무도 하지 않던 시도였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 전인데도 시선이 곱지 않았죠. 국악 공연에서 전에 없던 기획들이었어요. 많이 앞서 나가다 보니 오히려 ‘왜 저런 걸 하지?’ 하는 비판의 시선도 많이 받았어요.”

‘묵은’ 인연의 힘

46년 마산 토박이 우정과 결연하다

■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달랐다. 세종국악회관과 5년째 결연을 이어오고 있는 (주)대종이앤에프의 박상민 대표. 그는 2014년 세종이 올린 공연의 제목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21주년 공연이었을 거예요. ‘소리, 그 달콤한 유혹’인가? 공연 초대를 받고 아내와 이웃과 함께 갔는데, 와~ 인상적이었어요. 국악을 현대 음악과 서양악기들과 섞어서, 또 젊은아들이 즐길 수 있는 힙합... 이렇게 퓨전하게 접목했는데 아주 신선했어요. 아, 우리 국악도 저런 식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느꼈죠.” 역시 ‘묵은’ 인연의 안목은 남달랐다. 박 대표와 이 원장 두 사람은 1966년 동갑내기로 마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이다. 중학생 시절 교회에서 만나 대학, 결혼 등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게 다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인연은 46년째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뿐 아니라 그 시절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아직도 만나고 있다. “오늘 4년 만에 메세나 덕분에 얼굴 보는 거예요. 공연 초대하면 사부자기 티도 안내고 뒤에서 보고 가거든요. 각자 사는 게 바쁘니까 얼굴은 잘 못 봐도 잘 살고 있구나 믿는 거죠.” 이경원 원장의 말에 친구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다. 어느 날 ‘우째 지내노? 잘 사나?’ 이런 문자 한 통이 날아와도 그저 반갑기만 한 친구. 수년 만에 마주 앉아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친구, 진짜 ‘전우정’이다.

46년 우정이

5년의 동행으로

■

‘세종’이 오랜 친구와 결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5년이다. 2022년, 오래 이어오던 기업체와의 결연이 종결되면서 이 원장은 고민이 깊었다. “누구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예술단체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능력도 안되고 인맥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결연 기업을 찾아내나 싶어서 엄청 고민이었죠.” 세종국악회관의 공연들을 이어가려면 기업과의 결연을 계속해야 하는데 어디 누구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다. 결연이 끊어지면 당장 정기 공연을 올릴 수가 없었다. 주변에 기업하는 친구분들 없냐는 사무국장의 말에 떠올린 사람이 바로 (주)대종이앤에프의 박 대표였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우정이라도 이 원장의 성격상 운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의 대표로서 짊어져야 할 일이었기에 결행해야 했다. 차마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어 전화로 박 대표에게 사정을 전한 이 원장. '니가 좀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박 대표 역시 친구의 성격과 마음을 아는 까닭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저도 고민이 됐죠. 우리는 큰 기업이 아닌데, 내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 후원을 한다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컸죠." 길지 않은 고민 후 박 대표는 이 원장에게 긍정적인 답을 전했다. 결연 사업이 끝날 뻔했던 위기가 46년 '묵은' 인연의 힘으로 다시 이어졌다. 만약에 박 대표를 몰랐다면, 끝내 말을 꺼내놓지 못했다면 세종국악회관은 아마 큰 위기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 46년 묵은 인연의 힘이 또 한 번 새롭게 길로 이어졌다.



환경공해 방지시설업체 (주)대중이앤에프 예술단체와의 결연은 '자부심'

(주)대중이앤에프는 창원에 자리한 환경공해 방지시설업체이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지원한다. 용접을 비롯해서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기체가 발생하면 그걸 포집해서 필터로 정화시키고, 또 공장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게 돕는다.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박 대표는 세종과 결연을 맺은 후에 더 잘 되는 것 같으며 쉼없는 농담으로 친구를 안심시킨다. 46년 전 중학생 소녀처럼 "다행이다."라며 밝게 웃는 이 원장, 친구의 배려 깊은 농담과 그 말에 담긴 진심이 그저 고맙다.

"예술단체와의 인연은 세종국악회관이 아니었다면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가곡전수관과 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고려철강 대표가 친구인데, 이 자리에 오면서 이런 후원을 한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벼이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박상민 대표. 덕분에 직원들이 가지는 자부심도 크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의 공연이라고 말할 때의 뿌듯함이 있죠. 거래처에 우리 기업을 소개할 때도 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쩐지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세종국악회관의 공연을 도맡고 있는 김민재 사무국장도 예술단체 역시 누군가의 후원이 있다는 건 큰 자부심이라고 덧붙인다.

'묵은' 인연이 '새로운' 인연과 기회로

■ 세종국악회관은 신디사이저, 드럼, 타악, 해금, 대금 등 15명 내외의 고정 단원을 두고 있다. 김민재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다들 20년이 넘는 인연들이다. 그리고 공연에 따라, 기획에 따라 객원 연주자와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함께 무대를 만든다. 이경원 원장은, "연극도 좋아하고 무용도 좋아하고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시키니까 폭이 더 넓어지죠."라며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단다. 그렇게 사자탈춤도 무대에 올려보고 그네, 와이어를 타는 연출도 무대에 실현해냈다. 해설이 있는 공연인 렉처 콘서트도 맨 처음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크다. "인연들은 다 묵었습니다. 박 대표와는 46년이요 연주자들도 20년이 다 넘었어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서로 도움이 되면서 가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극장 중심의 큰 규모의 공연들을 많이 올렸다. "처음엔 보여주는 공연에 집착했었어요. 큰 기획으로 대극장 위주의 공연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사비까지 털어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하고 나니까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있었죠." 그런 이경원 원장에게 제동을 건 건 코로나

66

나의 뒤에
묵묵히
서 있어 주는 존재,

그 무언의
지지만큼
든든한 응원이
있을까?

였다. 팬데믹 덕분에 오히려 살았다. 대공연장이 아닌 학교나 야외 무대로 찾아가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세종국악회관의 퓨전 무대는 더 사랑받았다.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축제 같은 공연들이었고, 아기자기한 작은 무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너무나들 좋아해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죠." 이 원장에게 배운 한 선생님이 국악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작한 학교 수업이 그녀의 초심을 돌아보게 했다. '국악 교육'이 하고 싶었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기획하는데 큰 나침반이 됐다.

'묵은' 친구의 든든한 응원 '사실, 팬입니다.'

■ 박 대표에게 이 원장은 어떤 친구일까? "참 존경스러운 친구입니다. 외길, 한길을 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대극장에서 공연하던 시절에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게 옆에서 봐도 느껴졌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버텨내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라며 진심을 건넨다. "사실 후원자라기보다 팬입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전해 듣는 친구의 진심이 너무나 고맙다. "든든

하죠. 할 말 못 할 말 다 할 수 있는 오래된 묵은 친구이고, 우리 단체에서 하고 싶은 걸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니까 좋죠." '향후 10년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안심하라'는 박 대표의 농담에 웃음보가 터졌다. 이에 맞서 '늘 몸 건강하고 회사 좀 안 망하면 좋겠다.'는 이 원장이 던진 대답에 웃음이 더 커지면서 말들 너머의 진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건 뭘까?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꺾이지 않는 신념,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는 의지와 추진력,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누군가의 지지일 것이다. 그래서 '지지하다'라는 한자어에는 '지탱'하고 '버틴다'는 의미가 포함되나 보다. 응원봉을 꺼내 들고 호들갑스럽게 구호를 외치는 대신 '잘 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아.'라고 나의 뒤에 묵묵히 서 있어 주는 존재, 그 무언의 지지만큼 든든한 응원이 있을까? 46년의 우정이 맺은 이 아름다운 동행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지한다.



서로를 돕우는 기업과 예술의 ‘퓨전 동행’

(주)MSECM 옥영환 대표이사 × 제나 이소연 대표

지난 6월 18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미국 시애틀의 야외광장에서 ‘Korean Cultural Festival’이 펼쳐졌다. LA한국문화원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 축제에서 JYP의 국악 K팝 아이돌그룹과 함께, 우리 경남의 음악그룹 ‘제나’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대를 채웠다. 이번 공연은 경남 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주)MSECM이 후원했다. 2020년부터 7년간 함께하며 서로의 ‘발판’이 돼주고 있는 ‘제나’와 (주)MSECM, 둘의 동행을 따라가본다.

02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뮤직밴드 제나

■

제나는 2015년 ‘제나 탱고’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지역 예술단체이다. 제나는 순우리말로 ‘오로지 나 자신’이란 뜻으로 동음이의어인 라틴어로, 얼굴과 뺨, 대면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 한국의 시각으로 세계의 음악을 대면하고 창조해내겠다는 뜻을 담았다. 보컬&바이올린, 베이스, 건반, 해금, 대금, 아쟁, 반도네온, 드럼까지 총 8명의 정예 멤버에 음향감독 1명을 포함한 창작연주단체이다.

시작은 학교 스터디 밴드였다. 음악 공부를 위해 서울의 모 대학원에 들어간 이소연 대표는 그곳에서 탱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본격적인 계기는 정동극장에서 개최한 ‘전통ING’라는 공모대회였다. “국악기 해금과 결합한 음악으로 1차에 선정이 된 거예요. 2차 심사를 위해서는 30분치의 공연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길로 합숙에 들어갔죠.” 일주일 동안 한 친구의 집에 모여 곡을 만들어냈고 결국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정동극장에서의 우승을 계기로 국악을 결합한 프로 연주팀으로 나아가게 됐다.

시작이 이렇다 보니 경남보다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더 유명한 밴드가 됐다. 그리고 2018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팀으로 그해 유일하게 선발돼 해외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지방팀, 지역팀으로 밖에 보지 않는데 해외 경력이 있으면 일단 호기심을 가지세요. 더군다나 지역에서 해외로 진출한 팀은 잘 없거든요. 해외 경력이 주는 특별함과 이점이 있죠.” 제나는 에든버러 공연을 치르면서 기존의 ‘탱고’의 틀을 벗고 세계를 무대로 한국 음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음악 그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10여 년간 수많은 시도와 여러 번의 기회가 이어지면서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까지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프랑스 기획사에서 유럽진출을 두고 시험 무대를 줬는데 2회 공연 모두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쪽

에선 진짜 마음이 와 닿아야 기립박수를 친대요. 반응이 정말 좋았고 뿌듯했죠.” 2025년 11월 프랑스 공연을 계기로 그곳의 ‘뮤직 인 퓨전’이라는 예술기획단체와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 이번 연말에는 경남도청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등지로 투어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콘텐츠기업 (주)MSECM과 제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첫 인연

■

(주)MSECM은 교육콘텐츠기업이다. 농촌을 포함해 각 지역의 마을 단위 역량 강화 사업과 전국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한다. “공공기관에 독서통신교육이라는 책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 게 모태였습니다.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산지사까지 직원 90명 정도 규모로 성장했죠.” 옥영환 대표는 이를 시작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활용할 AI 기반의 독서 프로그램을 한창 개발하고 있으며 곧 출시할 예정이다. 또 진해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미래교육원, 부산의 AI센터 역시 위탁 운영하면서 그곳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채우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일까? 옥영환 대표의 생각은 ‘문화예술’로 가 닿았다. “요즘은 교육이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와 결합돼야 경쟁력을 가지거든요. 교육이란 게 일단 재밌어야 하니까요.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적인 영감도 필요하고 문화예술과 결합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습니다.”

첫 인연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맺어졌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도 농어촌에 사는 시골 사람들에게 지루한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으니 문화예술을 결합하자 싶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마을 노래 만들기, 옥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책임감 있게 도맡아 해줄 실력 있는 지역의 예술단체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나를 만났다.

이후, (주)MSECM의 거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됐다. 제나와 같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찾아내면서 ㈜MSECM은 더 특별해진 셈이다.

무엇보다 2023년 진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제나와 함께 열었던 공연은 인상적이었다. 창원지역 노인 주간 보호시설의 어르신들을 모두 초청했는데, 공연 후기도 현장의 만족도도 최고였다.

“낮 공연이었는데 전석이 꽉 차고 매진이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죠. 그때, 아 지역 공연팀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와 시설들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겠구나... 했죠” ㈜MSECM의 옥영환 대표는 그날의 감동을 전했다.

제나 이소연 대표 역시 이날의 공연은 인상적이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들 너무나 다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셔서 참 뿌듯했죠. 사업을 따서 이런 기획 공연을 매년 해보자고 대표님께 제안하기도 했어요.”

7년간 이어진 매칭펀드 ‘원원’하는 알찬 동행...

■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된 인연은 몇 년 후 경남 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역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지원책을 찾게 돼 좋았고 지역의 기업 입장에서 는 보다 특별하게 콘텐츠를 채워줄 ‘치트키’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다. 결연을 먼저 제안한 건 제나 이소연 대표였다. “메세나 매칭펀드 지원사업을 잘 모르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 항상 찾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가 약간 친분이 쌓인 후,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고, 그걸 수락을 해주셔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사업 파트너로서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제안을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

㈜MSECM의 옥영환 대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단체나 지역을 콘셉트로 가진 팀이 필요했어요. 실질적인 이유였고요, 우리가 많이 써먹죠.”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제나 이소연 대표는 이런 농담조차 고맙다. “일단은 팀을 먹여 살려야 돼요. 책임감이죠. 우리 멤버들도 다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 나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항상 기업의 대표님과 같은 마음이죠.” 대표로서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기 때문이다. 옥 대표는 지역 예술단체의 스토리로 콘텐츠를 특별하게 채우고, 제나는 보다 안정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가 되어주었다. 때로는

66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셔서
참 뿌듯했죠.

필요가 되어준 그야말로 서로가 ‘원원’하는 ‘알찬’ 동행이다.

제나는 ‘글로벌’ 뮤직 밴드라는 이름답게 세계 무대에서, 또 전국 무대에서 더 알아주는 팀이다.

을 10월 삿포로 단독 공연도 일본 측에서 먼저 콕 찍어 제나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깜짝 놀랐죠. 삿포로 총영사관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교류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제나’라는 팀을 초대하고 싶는데 섭외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4년 전에 났던 해외 진출 서류를 기억했다가 연락한 거니까 진짜 감동스러웠죠.” 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이소연 대표는 그 끈질긴 시도와 노력이 제나의 기회를 만들어왔다고 말한다.

생계조차 불확실한 작은 지역의 작은 예술단체가 어떻게든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그 수십 수백 번의 시도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는 옥 대표는 ㈜MSECM이 자그마한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도 이 팀이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제안서 낼 때 유명한 팀이다. 우리가 이 예산에 이걸 해줄 수 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팀의 명성이 더 올라가면 우리 제안서의 퀄리티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역이 지역에게 기회가 되는 환경이길...

■

해외로 전국으로 누비며 유명세를 치르는 제나지만 동시에 지역에서 좀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지역 밴드라는 이름표가 오히려 지역에서 더 홀대받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많다. 지역 관공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이른바 ‘유명한 강사’, 이름 있는 가수나 밴드를 세우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 대표는 지역이 먼저 지역 팀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새싹들이 자랄 수 있게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막 경쟁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선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줘라.

환경을 조성해주자, 그 이후는 각자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들이 다시 지역을 애기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기회와 발판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게 옥 대표의 마음이다.

10년 차를 넘어서면서 한차례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제나는 지난 2025년 프랑스 공연에서 새로운 길을 보고 힘을 얻었다. 여전히 무대에서 공연을 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현실에 발 딛고 그 꿈을 놓지 않은 채 그 가능성을 믿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국악의 매력과 전통성을 지키면서 월드 뮤직과 결합한 음악... 제나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MSECM 역시 젊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서 스스로 지역의 작은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되고 가능성이 되고 싶다.

콘텐츠가 필요한 기업에 문화예술로 채워 특별함을 더해주고, 무대와 자리가 필요한 예술단체에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업, 제나와 ㈜MSECM은 정말 인연이다. 서로의 필요한 시기에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보완하며 딱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응원하며 서로의 기회가 되어주고 있다. 퓨전의 묘미는 원래의 것들이 만나 더 특별하고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장르, 그러니 둘의 동행처럼 멋진 퓨전이 또 있을까?





경남메세나협회
신규 부회장사

지역과 함께,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현대위아

현대위아
경영지원본부장
-
양태규 전무

“문화예술은
기업과 지역을

Q.1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사로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감과 함께 앞으로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사로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위아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사로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앞으로 기업과 예술계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더 많은 활동의 기회를, 기업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Q.2 현대위아가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사로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셨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위아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습니다. 그중 문화예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품격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습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적 가치이자, 세대와 지역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 지원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위아도 이런 취지에서 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을 사내에 비치하고, 지역 음악가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연결하는 ”
중요한 자산입니다

Q.3 현대위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입니다. 제조기업이 문화예술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제조업은 기술과 효율의 산업이지만, 그 근간에는 결국 사람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은 제조기업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조직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 구성원들에게 문화예술은 정서적 환기와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미술 작품을 접하거나 공연을 경험하는 일은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게 해주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험은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제조기업이 문화예술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 중심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축적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사회와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4 부회장으로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현대위아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제가 바라는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기업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며,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예술인과 기업,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위아는 지역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농가 판로 확대를 돕는 '이음마켓'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역 음악가들을 초청해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무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대위아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내외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넓혀 메세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 더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Q.5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기업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위아 구성원들에게 메세나 활동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위아 구성원들에게 메세나 활동은 단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넘어, 일터 안에서 문화적 경험과 정서적 여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사업장마다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했는데,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예술이 사람들 가까이 스며들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실감했어요. 이런 활동은 직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고,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은 '우리 회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세나 활동은 지역사회 기여와 더불어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Q.6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지역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 문화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드는 두 축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만든다면, 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이 두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성과를 넘어,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 실행력은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활동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문화적 토양을 함께 가꾸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7 전무님 개인적인 삶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문화예술 경험, 또는 특별히 인상 깊었던 문화예술 현장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갤러리나 미술관을 찾아 명작부터 신인 작가들의 작품까지 두루 접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사동 쌈지길에 가서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국내 작가의 조형작품을 하나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그림을 보러 다니다 보면 작품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죠. 전시를 보러 온 분들이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문화예술이 지역에 감성과 여유를 더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문화예술이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미술이나 음악을 접하면 잠시 멈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사람과 사회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게 돼요.

Q.8 마지막으로 경남의 기업인과 예술인, 그리고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남은 산업의 경쟁력과 문화의 잠재력을 함께 가진 매우 뜻깊은 지역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께는 문화예술 후원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인들께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메세나 활동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는 문화예술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가치이며, 지역의 문화가 살아날수록 우리의 일상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위아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경남을 만드는 데 꾸준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병원
-
윤영길 원장

예술인의 불광불급의 의사 후유

한때 不狂不及(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유행했다.

무슨 일이든 오롯이 빠져들어 파고들어야만 ‘도’가 든다는 말이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굳은살이 될 정도로 기타 줄을 튕겨봐야 기타 좀 친다 자부할 수 있고, 입술이 부르르 정도로 악기를 불려봐야 연주 좀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 그래서 뭔가에 빠져들어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사람에게 우린 ‘존경’의 눈빛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또 아마추어 예술인으로서 그야말로 ‘미친’ 경지를 찍은 창원 윤병원의 윤영길 원장을 만났다.

「40여년 정형외과 의사 봉사하는 지역 의료인

창원 서상동에 자리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 창원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이곳에 한때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린 지역 의료계의 터줏대감이 있다. 40여년째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윤영길 원장. 지역에선 그야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시다. “요즘은 진료과목이 많이 세분화됐지만 저 때만 해도 척추와 허리, 팔, 다리, 손, 발, 무릎 할 것 없이 다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개업의가 먹고 살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죠, 하하.”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던지지만, 단호하면서도 세심한 눈빛과 말투에서 자신만의 신조로 엄격하게 의사의 길을 걸어왔음이 느껴진다.

특히나 창원 윤병원은 오래도록 경남 도내 곳곳을 다니며 의료 소외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펼쳐온 곳으로 유명하다. 또 1년에 한 번 씩은 해외에서도 의료봉사를 펼친다. 그중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육손이 아이의 손가락을 수술해 준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요거 없애줄까 하니까 해달래요. 폐주고 나니까 그 오지로 손가락이 붙은 합지증 환자부터 발가락 기형까지 막 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거 수술하려면 집 한 채는 팔아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진짜 열악합니다.” 해외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가 발달했는지 안다는 윤 원장, 그래서 해외 의료봉사를 멈출 수 없다.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잃을 뻔한 열아홉 청년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부산의 큰 병원에서 발은 이미 잘라낸 상태, 나머지 다리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도원에 1년 있다가 나한테 왔는데 이미 썩어서

시커멓더라고요. 처음엔 안된다고 했죠. 근데 그 부모가 한 번만 손대봐달라고 어찌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지. 10번쯤 수술해서 다리를 다 살렸어요.” 7~8년 전, 그 청년이 아이 아빠가 돼서 다시 윤 원장을 찾아왔다. 못 알아볼 정도로 멋진 인물에 밝은 모습이 었다. “다리 한번 보자 하니까, 아~ 쓸만하게 됐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요.”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든 결과를 보고야 마는 그의 성격은 의사로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미덕이었다. 어쩌면 그 미덕과 윤 원장의 고집이 그런 기적을 만든 건 아닐까?

「메세나 이전에 메세나를 실천 지역 예술단체 후원

지역에서 인맥이 남다른 윤영길 원장은 지역 예술인들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시작은 창원대학교의 모 교수가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였다. “한 35~6년쯤 전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면서 단장 자리를 딱



비워놓고 지휘자, 단원들 이름을 쓴 걸 가져온 거예요.” 관심도 없었으며 한창 일이 바쁘던 때라 거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누군가의 간절함을 모른 척하지 못했다. 총무와 지휘자가 이틀씩 찾아와 단장 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고 단장 자리를 수락했다.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겠냐? 나보고 ‘물 단장’ 하라는 그 말이냐? 좋아, 물 단장 하라고 하면 하지, 했죠.” 이후 윤 원장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5개 단체를 함께 지원했다. 한번 연주회를 열 때마다 대관비부터 소소한 비용까지 최소 5백만원, 해외로 떠나는 연주 여행도 흔쾌히 지원했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전용 연습실을 마련한 건 의미가 깊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지역에선 음악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의 예술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연습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연습할 공간이 없었다. 주택 반지하 공간에서 연습하다가도 시끄럽다는 민원으로 일주일도 못가 쫓겨나기 일쑤였다.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5개 단체를 지원해주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윤영길 원장은 자신이 병원을 짓게 되면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다. 말로만 ‘물 단장’이었을 뿐, 그야말로 마음까지 모두 쓴 ‘물심양면’의 지원이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33년 전 지금의 윤병원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아래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연습공간을 마련했다. 5개 단체가 돌아가며 맘 놓고 소리높여 연습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때 이곳 윤병원의 연습실을 드나들며 그와 인연을 맺었던 예술인들은 실력을 꽃피우며 당당히 지역 음악계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10년간 계속된 지원은 IMF를 맞으면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그에게 큰 자부심이다. “그때 단원들이 지금은 다 대장들이 예요.(웃음) 약속이었으니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죠.”

「색소폰 & 팬플룻 수준급 아마추어 예술인

지역 예술인들과의 인연 덕분일까, 아니면 태생적 감수성일까? 윤영길 원장은 사실 상당한 연주 고수이다. 색소폰과 팬플룻 연주 실력이 수준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물론 개인적으로 무대를 열고 심지어 현역 가수에게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상당하다. 윤영길 원장은 색소폰 연주를 시작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2012년 5월 28일, 그해 석가탄신일이었다. “오랫동안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외과의사들은 피를 보는 수술을 하는 날이 많은데, 피 봤으니 술 마신다, 이런 핑계로 술 많이 마셨죠. 또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 테니스 치고 땀 쪽 빼고 나서 한잔 먹는 게 보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감기가 오려고 해도 테니스 치고 나면 낫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2011년도에 병을 앓았어요.” 한순간 술 담배를 바로 끊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었다. 1년여 병치레하는 동안 악기나 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색소폰이었던 거다. “제가 장로인데 함께 교회 다니던 3명이 같이 하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목표한 노래 연주할 때까지는 해보자 시작한 게 단원 20명 정도로 지금까지 하죠.” 뭐하나 대충이 없었다. 입이 부르토고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건 물론이고 성산아트홀 무대까지 서고 나서야 색소폰 연주가 일단락됐다. 다음은 팬플룻이었다. “팬플룻 소리가 맑고, 아주 좋아요. 이 병원 개원할 때 교회 목사님이 팬플룻 CD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들었고 나뉘거든요. 그러다가 배우고 싶었어요.” 당시 1990년대 초반이면 팬플룻이라는 악기가 있는지도,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던 때, 그는 무작정 창원의 가장 유명한 악기 상점을 찾아가서 팬플룻을 찾았다.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곳도, 책도 없던 시절이었다. “이거 왜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구색 맞추려고 하나 갖다놨대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찾았대요.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못했죠. 그러다가 10년 쯤 지났나, 이거 안되겠다 해서 하나 샀죠. 근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죠? 1년 넘게 박아 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꺼내 불러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라.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면서 독학했죠.” 뒤편 시작하면 끝을 보는 윤 원장, 팬플룻 연습 역시 지독하게 했다. 입술 아래가 부르터서 찢어졌지만 오롯이 원하는 곡들을 연주해낼 때마다 그 희열과 감동은 남달랐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예사랑 단원들과 함께 12월 25일에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작은 공연도 펼쳤다.

「“나아들수록 악기는 꼭!”

윤영길 원장에게 색소폰과 팬플룻, 이 악기는 어떤 의미일까? “악기가 참 묘하구나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리에 빨려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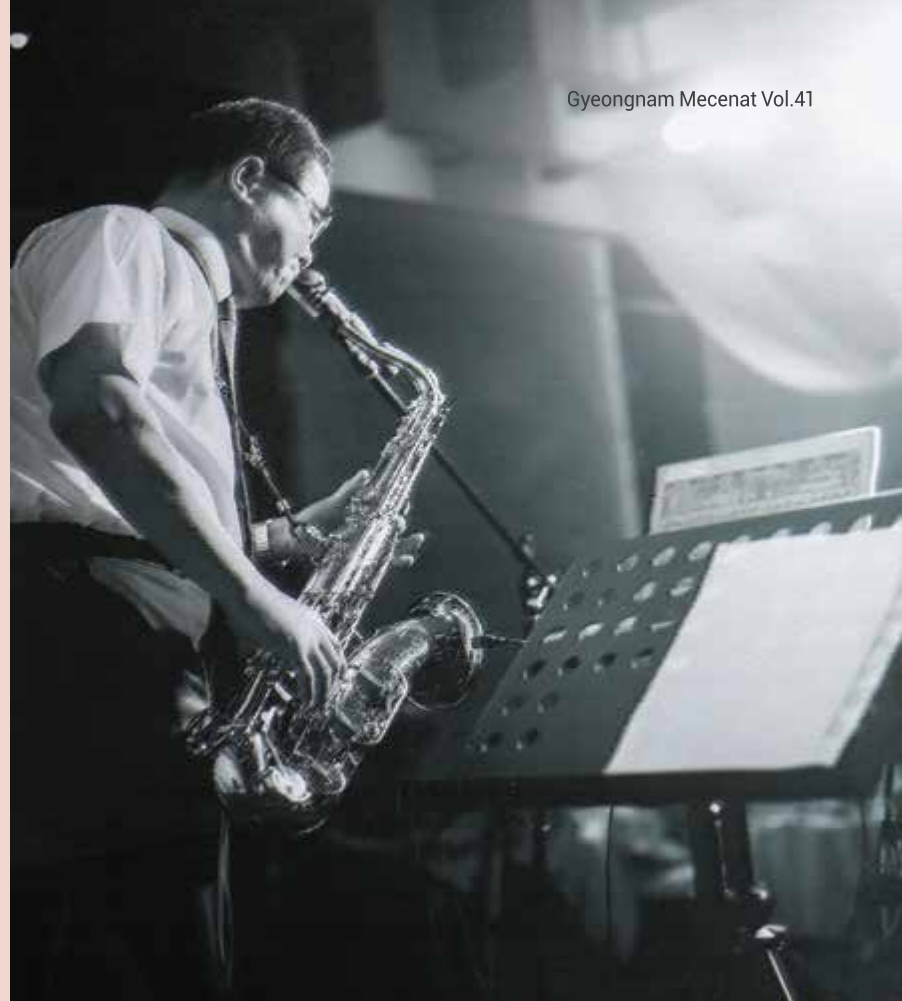


멜로디에 빠져들어 막 눈물이 나요. 혼자 울고 싶은 마음도 들고. 목사님은 득음하셨네요, 하던데 마음을 울리는 매력이 있어요. 색소폰도 그렇고 팬플룻은 더 해요.” 특히나 팬플룻을 불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나 눈물이 찬다는 윤 원장, 그는 나이 들수록, 또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악기 하나쯤 꼭 배우는 게 좋다고 말한다. “정말 편안해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힘든 직업일수록 또 나이 들수록 악기를 꼭 해야 합니다. 저녁에 진료 마치고 색소폰, 팬플룻 불고 있으면 행복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다 울음이 북받쳐서 겨우 연주를 마치기도 했다는 그, 어쩌면 성격 상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은 건 아니었을까?

몇 년 전엔, 지역의 한 공연장을 빌려서 특별한 칠순 잔치를 무대에서 펼쳤다. 색소폰, 팬플룻 연주에 이어 각설이 타령도 선보였다. “어느 날, 각설이 그게 너무나 배우고 싶어요. 저걸 한번 해봐야 하는데, 옛가워 구할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전화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전화했더니 몇 번 만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계룡산으로 오라는 거라. 갔지요. 산속 움막에서 배웠죠. 공연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각설이 모자도 만들어주고. 재밌었어요.” 그 뒤로는 손가락 장단에 꽃혀 열정을 쏟기도 했다.

윤영길 원장의 마음속엔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이 숨 쉬고 있는 듯하다. 그 영혼에 가닿을 때까지 미치게 하는 어떤 버튼이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것도 같다. 누군가는 별나다고, 그건 좀 아니라고 말리는 일을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갈 때까지 해내고 만다. 다가오는 팔순에는 새로운 악기로 클라리넷을 배우는 게 목표라고 한다.

테니스도 골프도, 색소폰도 팬플룻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보는 윤영길 원장, 의사로서의 소명도, 사람과의 인연도, 그리고 인생이라는 여정도, 끝까지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이어가려는 그의 모습이 존경스럽다.



BEOKSUGOL 45년, 연극에 미친 벼수들



지난 3월 밀양에서 열린 경상남도연극제에서 통영 극단 벼수골의 작품 〈태극기가 바람에〉가 경남메세나협회장상인 ‘단체 금상’과 함께 ‘개인 연기 대상’을 수상했다.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이야기에 관객의 갈채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벼수골답다’는 호평도 빠지지 않았다. 궁금해졌다. 과연 ‘벼수골답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50년 가까이 극단 벼수골을 지켜온 장창석 대표와 30년 넘게 무대를 만들어온 제상아 기획사무국장을 만났다.

통영연극예술축제의 산실, 벼수골

7월, 통영의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 통영 연극예술축제가 펼쳐졌다. 벌써 18번째 무대를 채웠다. 올해 주제는 공감과 소통, 제각각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자고 얘기하는 무대들이 가득했다.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은 무대는 역시나 개막 공연이었다. 바로 경남연극제 금상 수상작 〈태극기가 바람에〉가 통영의 여름 밤 바다처럼 깊고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장창석 대표 〈태극기가 바람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갈 곳이라고는 다리 밑이 유일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음도 갇혀 있는데 거기에 가출 소녀가 한 명 들어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소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소통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정말 이해 못 할 사람은 없는 셈인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극장에서 봐야죠~

제상아 국장 〈태극기가 바람에〉는 웃음 코드가 있는 비장한 연극이랄까요? 지역 극단이 작품을 고르고 배우를 고르고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번 작품은 그나마 벼수골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통영연극예술축제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극단 벼수골의 장창석 대표와 제상아 기획사무국장, 두 사람이다. 2005년 사비로 돈 천만 원을 모아 개최한 ‘전국 소극장 축제’가 그 시작이었다. 전국에서 그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소극장만의’ 연극 축제를 남해안의 작은 도시 통영에서 열었던 것이다. 그게 3년차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통영연극예술축제로 성장했다.

장창석 대표 통영은 정말 예술가의 도시죠. 박경리, 김춘수, 윤이상... 근데 연극은 다른 분야에 비해 크지를 못했습니다. 연극 분야에도 ‘동랑 유치진’이

있는데, 친일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에 내걸기는 조심스러웠죠. 의견도 많이 갈렸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냥 ‘통영’으로 합시다, 했죠.

제상아 국장 제가 기획자로서 욕심이 많았어요. 원래는 3년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2년 소극장 축제를 하고 나서 미친 척 하고 그냥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된 거죠. 덕분에 3회째 축제를 거하게 하게 되면서 지금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죠.

연극이 뭐길래? 미쳐서 걸어온 길

극단 벼수골은, 1981년 3월에 문을 열었다. 장창석 대표의 친형님이 시작했는데, 전문 극단이랄 게 없던 시절, 지식인들이 소주 한잔 기울이며 시국 얘기를 나누던 모임이었다. 학창 시절 연극을 했던 형을 도와 극단 일을 함께했던 장 대표는, 어린 마음에 여러 번 도망가기도 했지만 타의 반 자의 반 다시 극단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43세에 요절한 형님의 뒤를 이어서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벼수골을 지키고 있다.

장창석 대표 도대체 연극이 뭐가...? 이게 뭔데 사람 하나를 멀리 가게 했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거죠. 전문 연극단체라 했지만 연극할 친구들을 모으려고 해도 사실 밥이 되지도 않잖아요? 자연히 떠나기도 하고 또 눌러앉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미친놈도 하나 생기고... 그런 거죠.

제상아 국장 1991년 2월에 딱 스물한살 때 들어왔어요. 배우로 먼저 시작했는데 대표님이 넌 배우의 기질이 안보이는구나 해서 그때 제가 기획으로 돌아서겠다 했던 게 서른두 살 땡가, 세 살 땡가 그랬어요. 전문적인 공부는 이후에 했지만 당시에는 ‘기획자’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경남 연극계에선 1호 기획자였죠. 두말하지 않고 ‘한번 해봐라’ 하면서 직인을 내주셨어요.



벽수골 만의 ‘멋짐’ 국제교류로 이론 성장

전문 배우 8명과 함께 사실상 극단 벽수골을 이끌고 있는 장창석 대표와 제상아 국장, 두 사람이 함께 해온 인연도 벌써 35년을 넘어선다. 장 대표에게 철학부터 모든 걸 배웠다는 제상아 국장,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청소하며 아끼는 법, 하루를 더 빨리 시작하고 채우는 지혜, 창의적으로 고민하라는 신조까지, 장창석 대표가 그에게 톡톡 이야기를 던지면 제상아 국장은 그 생각을 톡톡 받아서 착착 일을 만들어간다. 하고 싶은 게 많은 욕심꾸러기 기획자와 숨 쉬듯 일상처럼 연극하며 살았다는 연출가. 두 사람의 호흡에는 꽤 ‘멋짐’이라는 게 묻어난다. 2010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지역 극단과의 교류도 그중 하나, 5개국 13개 단체와의 MOU를 맺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극단이다.

장창석 대표 좀 특이한 국제교류 연극제를 만들어 보자고 이 친구와 얘기를 했어요. 돈 주고 불러오는 건 다 합니다. 이게 진짜 교류 아닌가 싶었어요. 서로 오가는 거죠. 항공료는 각자 하고 숙박은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탈리아, 러시아, 스위스, 체코, 리투아니아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제상아 국장 이탈리아에서는 ‘블루 도그스’라는 음악극을 했는데, 최고 작품상과 관객상을 받았습니 다. 개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용의 작품인데, 음악도 10곡이나 되고 대사도 많았어요. 한국말로 대사를 했어요. 자막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대본만 번역해서 복사해줬죠.

장창석 대표 해외팀과 교류하다보니 태초부터 인간 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약간 의사소통 만 다르게 할 뿐이지 다 가슴이 있으니까요. 연극을 하다보면 언어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눈만 보면 안다잖아요, 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상아 국장 이탈리아 나폴리는 같은 남부라 결이 비슷해서 신기했어요. 또 MOU를 맺은 민간 극단 들이 거의 우리처럼 축제를 운영하니까 더 잘 통하 고... 서로가 더 가슴을 열면서 작업하게 되고, 한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연극의 새 장을 연 복합문화공간 ‘제3의 공간’
두 사람은 왜 이토록 연극에 빠져 있을까? 왜 연극 이 이렇게 미치도록 좋을까? 장창석 대표에게 물었

더니 우문현답이 돌아왔다. “고마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미쳤다가 보다 그냥 가는 거죠. 오늘 하다가 못한 일은 내일 눈뜨고 나와서 하고 또 다음 거 하고 그렇게 세월이 갔고 정신 차리 니까 여기 와 있네요.” 맞는 말씀이다. 이유를 알고 미쳐 빠져드는 경우가 있을까? 극단 벽수골은 ‘미쳐 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해나가고 있다. 지난 해 8월 15일에는, 희곡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인 ‘제3의 공간’을 통영에 열었다. 카페, 휴식 공간 과 함께 전국 최초의 희곡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 극단 벽수골은 지역 연극계에서 남다른 흔적 들을 남기고 있다.

장창석 대표 소설도 안 읽는 판에 누가 무슨 희곡 을 읽겠냐, 다 ‘포라이’들이 하는 짓이죠. (웃음) 정상 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정상들이 많으니까, 비정상들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 습니까?

제상아 국장 예전부터 복합문화공간을 너무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만들었죠. 벽수골이 희곡 번역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 세 작품도 영문으로 번역한 책자가 있어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기획자, 연극이 일상인 연출자

2010년부터 통영시민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 하고 있는 극단 벽수골은 <태극기가 바람에>를 비롯 해 대중에게 인기인 <봄이 오면>, 그리고 신작 <악의 피>까지 세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4개의 통영 이야기를 출판하고 공모사업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멋지게 ‘판’도 벌여볼 거다. 또 일생의 혼을 바친 원로 연극인들과 젊은 연극인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도 만들고 싶다. 하루하루 하고 싶은 게 많은 제상아 국장과 하루하루 할 일을 해 나가는 장창석 대표,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는 길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그리고 나란히 가고 있다.

장창석 대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벽수골 이 숨 쉬고 있는 한, 갈 겁니다. 끊임없이 하던 대로... 건강할 때까지는 가겠죠.

제상아 국장 벽수골의 역사와 대표님의 업적을 다 흡수해서 제 것인 양 하고 다닙니다.

인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이 연극이고 그 연극 에는 정신세계가 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함이 있고 그 심오함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쾌감 이 있다고 말하는 장창석 대표.
“벽수골 아이가? 바보 아이가? 벽시가 한 바퀴 재주 를 넘는다는 의미거든요. 또 벽수가 장승 아녘니까, 장승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를 지키면서 제주 넘으면서 살아가자. 그거 아입니까? 바보같이, 벽수같이.” 50년 벽수로 살아온 그들의 얼굴은 묘하게 벽수를 닮았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 온 길만큼이다 멋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들 한다. 그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내는 합창의 울림은 그 깊이가 더 특별하다. 합창이 주는 즐거움을 경남 도민과 나누고, 또 세계와 함께 교류하는 장이 지난 5월 우리 지역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경남국제합창제의 이모저모를 이상철 집행위원장이게 들었다.

높은 퀄리티, 열광적인 관객 호응. 경남국제합창제, 성공리에 마무리

지난 5월 14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연 내내 1,600석 규모의 객석은 가득 찼고, 무대에서는 국내외 내로라하는 합창단의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올해는 미국, 대만,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5개국과 국내 각 지역의 시립합창단까지 10개의 합창단 350여명이 참여했다. 수준급 합창단과 유명 지휘자를 초청한 높은 공연 수준, 열광적인 관객 호응은 물론 공연 진행까지 합창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가 높았다. 단 2년 만에 빠르게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그 성장세가 놀랍다. “무사히 마치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가한 외국팀들이 세세하게 배려해 줘서 너무나 편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뿌듯했죠. 큰 공연장 규모에도 놀랐는데, 관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해요. 전부 매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경남국제합창제가 경남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자긍심이 커요.”

경남에 울려 퍼진 천상의

하모니



세계정상급 지휘자 ‘필 상쿠안’ 참여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다. 창원에서만 3일간 했던 행사가 김해, 진주, 창원 이렇게 경남 동부, 중부, 서부권 핵심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렸다. 고정팬들도 많이 늘었다. 무엇보다 ‘필 상쿠안’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함께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 필 상쿠안은 미국 합창지휘자협회 전국 부회장인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합창 행사를 이끄는 지휘자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녀가 경남국제합창제에 함께한 자체로 국내외로 엄청나게 홍보가 됐고 덕분에 경남국제합창제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제적인 관심도 커졌다.

세계가 함께 부른 고향의 봄 & 아리랑

올해 경남국제합창제의 ‘여는 무대’와 ‘닫는 무대’는 더 특별했다. 맨 처음 여는 무대는 우리 동요 ‘고향의 봄’을 해외 연합팀이 함께 불렀다. 광주, 김해, 용인 시립합창단의 상임 지휘자가 각각 하루씩 지휘봉을 잡았다. 다양한 국적, 이국적인 외모를 한 이들이 귀에 익은 선율과 가사를 노래하는 풍경이 생경하면서도 경이롭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이들의 목소리로 표현된 ‘고향의 봄’ 역시 우리의 정서와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닫는 무대는 더 의미가 깊었다. 전 출연자가 우리의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특히 첫날엔 미국지휘자협회 부회장인 필 상쿠안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미리 악보를 받고 연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리랑’의 서정을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해냈을까, 한치의 이질감도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 합창의 묘미는 과연 ‘조화’로구나, 이게 문화교류구나 느끼게 된다. ‘하모니(Harmoy)’라는 말이 전하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무대였다.

홍분과 감동의 로비음악회

경남국제합창제가 펼쳐진 사흘 내내 감격과 감동 스토리가 이어졌다. 그중 가장 놀라운 일은 ‘빈개 로비음악회’였다. 사실 원래 예정된 로비음악회가 있었다. 창원, 진주, 김해 공연장에서 각각 3팀씩 공연 전에 공연장 입구쪽에서 짧은 공연을 선보였다. 그런데, 합창제 마지막 날 창원 공연에서 그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관객석에 있었는데, 집행위원장님, 지금 난리입니다.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창팀들이 공연 마치고도 ‘로비음악회’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막을 수 없겠더라고요. 공연 마칠 즈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못 막습니다.” 하더라고요. 진짜 못 막겠더라고요.” 서둘러 배치를 한 집행위원회와 발 빠르게 움직인 스태프들, 모든 정해진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이 퇴장하는 로비에서는 다시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죠. 무대에서의 감동이 로비에서 또 재현되니까 너무들 좋아하셨죠. 그게 소통이고 교감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합창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서 그 감동이 잊히지 않습니다.”

합창의 열정이 빛은 성공의 하모니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약서상의 문구나 선곡까지, 사전 소통과 조율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전담 인력도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소수 인원이 많은 일들을 해내느라 과부하도 걸리고 실수도 했다. 자원봉사자와 스태프들이 1년 내내 수고를 해 왔다. “1년에 회의만 수십 번인데, 경남합창연합회 임원들, 창원합창연합회 임원들, 핵심 스태프들이 모두 합창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로 꿈을 가지고 함께 해줘서 가능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벌써 내년 합창제의 준비가 한창이다. 캐스팅 역시 50% 이상 확정돼 있다. 내년엔 해외 참가팀을 한 팀 더 늘릴 계획이고, 음악도시 통영에서의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 좋은 합창팀은 일일이 찾고 발품 팔아가며 만나고 있다. 합창에의 열정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다. 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한 ‘프리 합창제’와 한국을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창의 힘과 효과를 믿고 성장해나가는 경남국제합창제. 머지않은 미래에 경남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문화를 함께 짓고,
예술로 마음을 잇는

복합문화 예술공간 거제문화지음

📍 경남 거제시 장승로 145

거제에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이
탄생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의 호텔
시설을 리모델링해 2025년 10월
문을 연 거제문화지음이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를 만들
고 나누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제 문화예술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



1 — 거제문화지음 전경

2 — 거제문화지음 바다정원

3 — 연습실

4 — 로맨틱 피크닉 전시 체험

거제 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

거제문화지음은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된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전시실과 교육실, 연습실, 소담홀(다목적실), 바다정원 등을 갖춰 전시와 공연, 교육, 창작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조성했다. 시민들에게는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전시를 즐기고 문화를 배우는 열린 공간을,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연습,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서로의 문화가 만나고 이어지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공간은 '바다정원'이다. 장승포 바다와 맞닿아 있는 야외공연장으로, 계절마다 변화하는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거제문화지음의 상징적인 장소다. 올해는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SEA:SONG-바다정원에서 피어나는 다섯 개의 합창'이 이곳에서 개최된다. 바다와 음악, 계절의 흐름이 어우러진 이 무대는 장승포 바다를 품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체험하는 시간

거제문화지음은 시민들이 언제 찾아와도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미술, 음악, 무용, 공예 등 폭넓은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예술아카데미'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개관 전 8개 강좌로 운영되던 예술아카데미는 2026년 2학기 28개 강좌로 늘어날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체 문화기획 브랜드인 '소담예감(소소한 클래식·담화살롱·예감플레이·감성재즈)'도 운영된다. 이곳의 대표 공간인 '소담홀'과

'예술적 공감' 콘텐츠를 결합한 '소담예감'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가와 전문가를 초청해 공연과 강연, 체험형 예술교육을 통합적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영된다.

경남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다목적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이 이어진다. 체험전시 '로맨틱 피크닉'이 8월까지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전시 '한글날 특별전'과 수도권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멸종위기동물 특별전' 등 다채로운 주제의 전시가 연중 이어진다. 이처럼 거제문화지음은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공연과 전시, 교육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플랫폼

개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거제문화지음은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이 예술단체 활동을 이어가는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또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승포 일대까지 발걸음을 넓히는 방문객도 늘어나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앞으로도 거제문화지음은 시민과 예술인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양산을 더 특별하게

올해 양산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2026년을 ‘양산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양산을 찾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양산에는 자연과 역사, 먹거리 등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여행의 여유를 더해주는 문화공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부터 영화 같은 시간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 손끝으로 추억을 만드는 체험공간까지, 양산을 방문했다면 꼭 둘러볼 만한 공간들을 소개한다.



숲에서, 일상 속 작은 쉼표

愛 後

- 아름다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심신치유실'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싱잉볼 소리에 몸과 마음을 달래고, 건식 수압 치유 기기를 활용한 '아쿠아테라피'로 피로를 풀어낸다. 전문 치유 프로그램과 치유시설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 '숲에서'의 하루다. 숲에서는 2021년 7월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공립 향노화 힐링서비스체험관으로, '숲속에서 사랑(愛)으로 천천히(徐) 쉬어갈 수 있는 자연 속 치유 공간'이다.

숲에서에 들어서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치유동과 힐링동(숙박동)을 감싸는 대운산의 푸른 숲과 맑은 공기는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숲에서의 진가는 치유 프로그램에서 더욱 빛난다. 이곳에서는 숲을 바라보고 걸으며 내면을 다독이는 '산림치유', 요가와 밸런스 운동 등으로 신체에 활력을 더하는 '건강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 영양사가 구성한 '치유식사'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 양산시 탑골길 248

🕒 당일형 10:00~17:00
숙박형 15:00~종료일 11:00
(화요일 휴관)

☎ 055-379-8520



이곳의 가장 큰 강점은 전문 치유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이다. 치유사들은 참여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한 뒤 개인의 컨디션과 상태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객들에게 깊이 있는 치유 경험을 선사한다. 덕분에 단체 프로그램으로 숲에서를 찾았던 방문객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치유 프로그램은 당일형은 물론 1박 2일, 2박 3일 숙박형으로 운영돼,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

된 숙박시설은 대운산과 맞닿아 있어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전후에는 심신치유실, 아쿠아테라피, 열치유실 등 치유시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은 순간이라면,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어 줄 숲에서를 찾아가 보자. 대운산의 청정 자연과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시간은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채워줄 것이다.

★★★★★ 오늘의 추억, 별 다섯 개 영화공장

📍 양산시 덕계북길 35

🕒 9:00~23:00

☎ 055-912-7001



- 새로운 영화가 보고 싶은 날, 멀티플렉스 극장을 찾는 것도, 집에서 OTT를 켜는 것도 웬지 아쉽다. 이럴 때 폭신한 소파에 기대 가족, 친구, 연인은 물론 반려동물과도 함께 영화를 즐기며 오붓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프라이빗 영화관 ‘영화공장’이다.

영화공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제조업 공장부지에 영화를 즐길 새로운 공간을 고민한 끝에 탄생했다. 여럿이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도 독립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고, 일반 영화관과 달리 관람실(스카이박스석) 단위로 운영되는 지금의 형태가 완성됐다. 2인실부터 2~4인실까지 다양한 규모의 스카이박스석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영화를 즐기려는 이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박스석 외에도 그라운드석이 마련돼 있으며, 단체 관람이나 장애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개별실로 운영되는 만큼 관람 환경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예약 시 소파형과 매트리스형 등 원하는 좌석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람실 온도와 영화 음량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영화를 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영화공장만의 매력이다. 메인 메뉴인 치킨은 영화 관람과 함께 즐기기에 좋아 인기 메뉴로 꼽힌다. 주문한 음식은 상영 중에도 룸서비스처럼 받아볼 수 있으며, 외부 음식은 반입할 수 없다.

올가을 영화공장 2관도 문을 열 예정이다. 총 20개의 컨테이너형 룸으로 운영될 2관은 더욱 많은 방문객에게 색다른 영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영화공장 스카이박스석을 예약해보자.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함께한 영화 한 편은 별 다섯 개의 추억을 남겨줄 것이다.

산인요도자기체험관

예인3512! 나만의 감성을 빛다

- 물레를 돌려 흙에 생명을 불어넣고, 머그컵과 접시에 색을 입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완성한다. 전시장에는 과감한 색감과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도자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낸다. 도자기를 직접 만들고 감상하는 즐거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예인3512’다.

예인3512는 금도자기 명인 이덕규 도예가의 뒤를 이어 2대째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현 대표가 운영하는 도예체험·전시공간이다. 도자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낯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이 대표는 누구나 도자기를 편하게 보고, 만들며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예인3512를 꾸렸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전기 물레체험과 페인팅 체험이다. 전기 물레체험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물레를 직접 다루며 흙이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페인팅 체험에서는 머그컵이나 접시에 자신만의 그림과 색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아이가 체험하는 동안 보호자도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수현 대표가 체험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과 방문객들의 개성이다. 특히 주요 방문객인 아이들이 참여하는 체험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지도하고, 작품을 만들 때도 각자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한다. 덕분에 같은 체험에 참여해도 모두 다른 모습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 예인3512의 매력이다. 체험장 옆 전시장이자 판매장에서는 이수현 대표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도 할 수 있다.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다양한 작품까지 둘러보다 보면 도자기가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양산 여행의 마지막을 예인3512에서 마무리해보자. 나만의 감성과 느낌을 담아 빛은 도자기는 여행의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줄 특별한 기념품이 되어줄 것이다.



📍 양산시 하북면 예인길 35-12

🕒 10:00~22:00

☎ 010-9445-4808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노자



에이컴퍼니 스튜디오 대표

주은철

Joo Eun Cheol

1 Mecenat News

글 | 메세나 사진 | BAO

2026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개최

M

경남메세나협회 2026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목)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를 되짚어보고 2026년의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협회의 발전에 힘을 보탬 신입 임원 선임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업과 예술, 231개 팀 결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협회는 2025년도 사업 보고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231개 팀 결연이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정기탁 후원을 포함하여 41억여 원이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되어 경남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한층 공고히 했다. 이로써 기업과 예술단체 누적 결연 총 2,407개 팀, 누적 지원금 420억 원을 달성한 협회는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예술의 균형발전과

선순환의 문화생태계 조성

올해는 '기업과 예술단체 230개 팀 이상 결연'을 목표로 메세나 가치를 도내 곳곳에 확산시킨다. 특히 신규 예술단체 참여 기회 확대, 후원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선순환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특화 사업, 청년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선도할

임원 재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메세나를 이끌어갈 신입 임원진 선임도 이루어졌다. 협회 부회장에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권동현 본부장과 현대위아(주) 양태규 전무가 신규 취임했으며 이사에는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정영철 국장이 교체 선임되었다. 이로써 2026년도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진은 회장 1명, 부회장 12명, 감사 2명, 이사 12명, 고문 4명으로써 총 31명으로 구성되었다.

김태한 회장은 "2025년도 경남메세나협회의 성과는 경남의 문화예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후원자가 돼 주신 기업인 그리고 문화예술을 곳곳이 지켜온 예술인 모두가 하나 돼 이루어진 값진 업적"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시도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기업의 지속 성장, 더 나아가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메세나가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 Mecenat News

글·사진 | 메세나

2026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시행

M

올해도 도내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창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되는 <2026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메세나 펀드지원금을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도 중소기업 182개사(社)와 167개 문화예술단체가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하며 결연을 맺었다.



예술단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지난 5월 27일(수)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는 <2026 예술단체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의 첫 발걸음으로 도내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안내, 재원 조성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예술단체의 행정업무 수행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이날 행사에서는 김옥진 한국메세나협회 선임이 기업과 예술의 새로운 협력 방안으로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소개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이 캠페인은 기업이 공연·전시 티켓 또는 도서와 음반 선물을 구입하여 문화기업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경우,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1:1 매칭,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기존의 접대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나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문화예술을 선물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로 인사'하는 이 방식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고급스럽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지속가능한 교류 도모

이어 경남메세나협회 강주영 대리가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금의 운용과 투명한 정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협회는 "지원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매개하겠다"라며 예술단체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예술단체 워크숍 설명 자료와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관련 서식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열린공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6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운영관련
서식 및 가이드북 바로가기



민간 후원으로 키우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



지난 6월 9일(화) 부산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헌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부산메세나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메세나 단체, 문화
재단,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열띤 논의
를 펼쳤다.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하선주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장,
김재휘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이 나서 지역 메세나
우수 사례 및 민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정종은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기업, 언론 등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경남메세나,
지역 메세나의 이정표가 되다

이날 하선주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장은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 동행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하선주 사무국장은 발표를 통해 지난해 경남메세나협회가 달성한 ‘기업-예술단체 231개 팀 결연’
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누적 결연 2,400개 팀, 누적 지원금 420억 원
돌파’ 등의 우수한 성과도 함께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경남의 메세나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비결은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메세나 정신과 예술인들의 열정, 그리고 이를 촘촘하게 연결한 협회의 매개 역할 덕분”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지역 메세나 단체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ESG+MECENA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Mecenat



ESG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 1

예술의 인지적 가치 발산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 그 자체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술 본연의 인지적 가치와 예술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친환경 실현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 2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 확대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창의성과 심미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존 추구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높입니다. 메세나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감성나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정서적 호의와 지지를 얻도록 돕습니다.
- 3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문화적 소통을 가능케 하며, 문화나눔을 통해 소득·세대·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비차별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4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

문화예술은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가친화적 문화가 스며들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메세나기구인 AFA(American For the Arts)는 예술이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5

근로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영향

포춘이 선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는 직원 응답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문화예술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업신뢰도, 존중, 자부심, 동료애 등에 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직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구리 제련소의 폐기물로 인해 황폐화 되었던 일본의 나오시마섬은 베네치아그룹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을 갖춘 문화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떠났던 어촌 마을은 지역 재건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세나활동은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과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7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증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정신활동이며, 예술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개인의 윤리성, 관계 건전성과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로 가꾸는 기업문화는 개개인의 윤리적 성숙을 통해 평판 위험, 인적 위험 등의 비재무 위험에도 대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 8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메세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쌓은 차별화된 신뢰는 ESG 시대에 새로운 공급망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9

시민 에너지 독려

ESG 경영환경에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은 대단히 큼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예술의 메시지 생산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환경·사회 등급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 에너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의 파이를 키워 미래의 수익 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10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밀레니얼 세대는 기업의 사회 기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특히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메세나활동은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활동은 미래 자산인 4C(Creativ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를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수단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 W. A. MOZART



계몽주의의 물결, 그 정점에 선 모차르트

독일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이론가 겸 작곡가인 베르크마이스터 (Andreas Werckmeister, 1645-1706)는 1691년 그의 저서에서 음악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서만 사용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영국의 음악역사가이자 작곡가였던 찰스 버니 (Charles Burney, 1726-1814)는 1776년 집필한 자신의 저서에서 음악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악의 없는 사치품이며 청각을 크게 발전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18세기에 생겨난 사상적 변화가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몽주의’라 일컫는 18세기 사상의 두 가지 이념·경험에서 나온 지식에 대한 신념과 공통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요시하는 신념-은 개인을 연구의 출발점이자 최종적인 기준으로 보며 모든 것은 개인의 행복에 어떻게 공헌했느냐에 따라 평가되었다. 저마다 자기의 내적인 생명을 한껏 즐기는 것이 계몽주의시대의 특징이 된 것이다. 이런 개인주의적 경향은 예술, 특히 음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어 18세기 중기 이후의 음악은 이전의

바로크시대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이어졌다. 음악어법은 국가간의 경계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음악 자체는 재미가 있는 동시에 품위가 있어야 했으며 단정함이라는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정이 풍부해야만 했다. 불필요하고 복잡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감수성을 지닌 청중이라면 누구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러워야 했다. 이러한 이상을 가장 완전하게 실현한 음악은 18세기 말의 고전주의시대에 작곡되었다. 그 고전주의음악의 문을 연 작곡가가 하이든 (Franz Joseph Haydn, 1732-1809)이라면 그 정점에 있었던 작곡가가 바로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이다.

서양음악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자취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비록 서른다섯 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서양 고전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8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선율의 아름다움, 형식의 우아함, 화음과 텍스처의 풍부함이 가득한 그의 음악은 각 장르마다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기에 모차르트는 서양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잘츠부르크 궁정관현악단의 카펠마이스터였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일찌감치 어린 아들의 재주를 알아보았고 직접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으며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모차르트는 다섯 살 때 이미 작곡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열정적으로 아들을 교육하던 아버지는 여섯 살때부터 모차르트를 유럽 각지로 여행을 보내 연주활동을 시키고 여러 작곡가들과 교류하며 음악적 경험을 넓히게 하였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며 많은 작곡가와 만나고 이들에게서 당시의 음악어법을 배우게 된 모차르트는 다양한 교향곡과 오페라 등 여러 장르를 접하며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여러 대도시와 궁정에서 연주를 선보인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에 머물며 궁정음악가로 활동하였으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 궁정과 여러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대주교와의 불화를 계기로 스물다섯 살에 빈으로 떠나게 되고 이후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른다. 그 곳에서 콘스탄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모차르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결혼하게 된다.

“천재성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만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음악가”

스물다섯 살부터 10년 동안 모차르트는 오페라 예술계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세 작품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를 비롯해 수많은 걸작을 작곡했다. 이 오페라 작품들은 극음악에서의 모차르트의 혁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잠재된 본성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표현을 반영한다. 또한 이 시기에 교향곡, 피아노협주곡, 실내악도 많이 작곡했는데, 이 작품들은 곡의 구조가 명확하면서도 화성과 멜로디가 풍부하며 그의 음악적 스타일이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성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음악적으로는 매우 재능이 뛰어난 모차르트였지만 이에 반해 그의 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작곡, 연주, 강의로 많은 수입을 얻었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했고, 도박과 음주를 좋아한 탓에 재정적 위기는 늘 그의 곁에 도사리고 있었다. 또한 무분별하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작곡과 연주 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생의 마지막까지 수많은 걸작들을 작곡하였다. 그러던 중 마지막 작품인 레퀴엠의 끝을 맺지 못하고 모차르트는 1791년 12월 5일 오전 0시 55분 경 불과 서른다섯 살이라는 짧은 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빈 외곽의 성 마르크스 묘지에 묻혔다.

천재가 남긴 위대한 유산, 무대 위의 독보적 걸작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차르트의 작품양식은 매우 다양하여 당시 유행하던 음악의 모든 장르를 다루었으며 모든 장르에서 걸작을 남긴 음악사의 유일무이한 작곡가이다. 모차르트는 생애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극음악을 작곡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약 20곡의 오페라이다. 이 중에는 이탈리아어를 대본으로 한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한 징슈필 등이 포함된다. 오페라 세리아로서는 『이도메네오』와 『황제 티투스의 자비』가 각기 독특한 스타일을 나타낸 인상적인 작품이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오페라 세리아보다 오페라 부파에서 더 유명한

걸작을 남겼는데 『코지 판 투테』는 등장 인물이 적지만 이들 간의 앙상블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특징인 작품이다. 또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걸작의 반열에 오른 오페라 부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징슈필 중 대표적인 오페라는 『후궁으로부터의 유괴』와 『마술피리』를 들 수 있는데 그중 『마술피리』는 당시 오페라의 모든 스타일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위대한 작품이라 하겠다.

전 장르에 새겨진 천재의 지문

모차르트의 창작 활동 가운데서 오페라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르는 교향곡이다. 약 50곡의 교향곡 중 빈 시대에 작곡된 35번부터 41번까지의 후기 교향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전파 교향곡의 정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걸작이다. 세레나데 풍으로 쓰였으면서도 교향곡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35번 『하프너』, 하이든 풍의 정취와 유려함이 돋보이는 36번 『린즈』, 그리고 3악장으로 구성된 38번 『프라하』에 이어 최후를 장식하는 39번부터 41번 『주피터』에 이르는 〈3대 교향곡〉은 각각 독창적이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위대한 걸작이다.

장르의 발전과 완성이라는 점에서 교향곡 이상으로 중요한 장르는 협주곡이다. 특히 50곡이나 되는 협주곡 작품 가운데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피아노협주곡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차르트가 스스로

연주하기 위해 쓴 곡으로 고전파 협주곡의 발전과 완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 외에도 바이올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하프 등을 위한 협주곡은 모두 그 악기를 대표하는 협주곡으로 인정받는다.

모차르트는 실내악 장르에도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 5중주는 수가 적으나 뛰어난 곡이 많으며 특히 만년에 작곡된 현악5중주곡 g단조는 같은 조인 40번 g단조 교향곡과 더불어 모차르트의 많지 않은 단조 작품들 중 걸작으로 불리고 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작품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음악활동 초기부터 그는 피아노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했으며 이 악기를 위하여 수많은 소나타, 환상곡, 변주곡과 그 밖의 소품을 작곡하였다. 잘츠부르크 시대의 갈랑 양식을 대변하는 우아한 작품들과 연주여행 중 각 지역의 민속적 스타일을 반영하면서 작곡된 작품들은 모차르트 음악의 다양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준다.

성악곡 중에서도 교회음악은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의 궁정음악가로 일하던 시기에 쓴 『대관식미사』가 유명하며, 빈 시대에는 겨우 2곡의 미사곡 밖에 작곡하지 않았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c단조 미사와 그의 마지막 작품인 레퀴엠은 고전파 시대 교회음악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도 초기의 모테토 『엑술타테, 유빌라테』와 약 60곡의 연주회용 아리아, 그 외 중창곡과 합창곡 및 가곡은 고전파 시대의 여러 성악양식의 경향을 종합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 된 천재

모차르트의 음악 양식은 고전주의의 시대적 영향 안에서 당시의 모든 음악어법들을 가다듬어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형시키고 승화시켰다. 그는 유럽 각지에서 유행하던 모든 국제적 양식들을 부드러운 태도로 흡수하였고 여기에 그만의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성을 가미하여 독일 고전주의 음악의 정수를 표현함으로써 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의 교향곡은 그 개성적인 창작이 베토벤에게 이어졌고, 가곡은 베버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는 모차르트가 “천재성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만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음악가”라고 말했다.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수많은 걸작을 세상에 남긴 모차르트의 음악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삶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다.

이동신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계명대학교 작곡과 지휘 전공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지휘과 석사 및 연주 박사학위 취득
창원마산시립교향악단 및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대상 특별상
(사)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공로상





알렉상드르 카바넬, 《Ophelia》, 1883. 캔버스에 유채, 77×117.5cm. 개인소장.

생각이라는 늪, 유예되는 행동

알 수 없는 우울과 침울함이 엄습하여 ‘불안’이라는 감정이 드는 날이 있다. 정말 이유가 없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정의했던 4가지 기질 중 흑담즙이 많이 분비되어서 그런가 하는 때가 있다. 기분 좋게는 지식인이나 천재형 예술가들을 논하면서 “생각이 많고 섬세해서 그래” 다독이며 나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행동주의자 미드(George Herbert Mead, 1863~1931)는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생각하는 존재’로 변화해간다고 보았다. 이처럼 복잡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사유하느라 깊은 고뇌에 빠진 자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고전이 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이다. 〈햄릿〉은 덴마크 왕자 햄릿을 가운데 두고 펼쳐지는 인간의 고뇌와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인간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즉, 사유하는 인간의 자아가 복수를 향한 본능과 왕자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충동을 맞이하면서 정체성에 균열을 내며 깊이 고뇌하는 철학적 성찰이 햄릿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다. 햄릿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이 느리다는 점이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의심하며 행동을 유예(Delay)한다. 햄릿의 저항할 수 없는 고뇌와 불안은 정작 자신보다 그를 사랑했던 연인 오페리아를 무참히 짓밟는다. 햄릿의 비극적 사유가 가장 처절하게 투영된 거울이 오페리아인 셈이다.

그저 답답하게만 보였던 햄릿의 주저함은 젊은 시절, 무모할 정도로 행동이 앞섰던

햄릿, 사유의 늪에 가라앉다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실패의 무게를 알게 된 지금, 격한 공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삶을 더 진중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의 고뇌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번민하는 처절한 어른의 초상이었음

을 이제는 깨닫는다. 햄릿의 “사유는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라는 고백처럼 실패에 대한 과잉된 불안은 실행으로 행동화할 시간조차 유예하고 있다.

두 개의 붓끝이 전하는 침잠의 미학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 1829~1896)의 작품 《오페리아》는 이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오페리아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자연의 풍경을 아주 정밀하게 담아내기 위해 하루 11시간, 꼬박 5개월을 투자한 이 그림은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이다.

그녀의 벌어진 입과 초점 없는 눈은 극도의 불안과 정신적 붕괴를 보여준다. 주변을 에워싼 화려하고 정밀한 식물들은 그녀와 대비되어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모습은 마치 햄릿과 세상이 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영혼이 침잠하는 느낌을 준다.

밀레이와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지만, 밀레이의 《오페리아》 그림에 깊은 감명을 받아 묘사한 알렉상드르 카바넬(Alexandre Cabanel, 1823~1889)의 《오페리아》는 물에 빠지기 직전, 부러진 나뭇가지를

잡고 위태롭게 앉아있는 순간을 포착했다. 밀레이의 오페리아가 이미 체념했다면, 카바넬의 오페리아는 물을 바라보며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모습이다. 명한 시선은 생각이 너무 많아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을 거울처럼 비춘다. 그녀의 슬픈 눈망울은 햄릿의 변신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실존적 불안을 드러낸다. 떨어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을 영혼의 붕괴와 고훈적이고 정적인 미로 표현하여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이 연출된 듯하다. 살롱전에서 《비너스의 탄생》으로 1위를 차지하며 호평받았던 카바넬은 오페리아를 나뭇가지에 매달려 곧 물에 빠져 죽을 미친 여자가 아닌 그녀의 유연한 신체 곡선과 풀어헤쳐진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의 표현으로 시각적 유혹이 비극적인 슬픔을 압도하는 분위기로 화면을 채웠다. 매끄러운 표면 처리의 고전주의적 요소와 환상적인 낭만주의 주제가 융합된 19세기 화가로서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하기를 권한다.

특히 풍경을 통한 감정의 투영은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함으로써 존재의 불안정성을 더욱 극대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잔혹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두 점의 오페리아 그림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밀레이와 카바넬은 왜 죽음을 이토록 아름답게 묘사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삶의 가장 비극적이고 불안한 순간조차 예술이라는 숭고한 형태로 위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었을까?

오페리아의 물속으로 침잠하는 모습은 불안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처연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를 예술의 완충지대를 거쳐 안전한 거리에서 슬픔과 시각적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들을 선사한다.

4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공명하는 주파수

어른이 되어 ‘햄릿’을 읽은 어느 날 밤, 샤워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Memory Remains〉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밤은 고요하고 후회로 무겁게 내려앉아요”라는 가사의 도입부는 생각이 많아 행동하지 못하고 밤마다 후회와 불안에 시달리는 햄릿의 고백이자 나의 심경처럼 들렸다. 절규하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400년 전 햄릿이 시공간을 뚫고 나와 울부짖는 듯했는데 사람이 아닌 테이토로 조합된 AI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이 의외였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130년 전 밀레이의 그림, 그리고 오늘날 AI 음악이 번민하는 이 시대의 햄릿이자 오페리아들을 위로하고 연결하고 있는 듯한, 신비롭고 기묘한 경험을 하였다.

밀레이와 카바넬의 붓끝에서 태어난 오페리아가 고뇌에 의한 불안의 시각화라면 그날 샤워실에서 흘러나온 AI 노래는 불안의 청각화였다. 불안과 후회라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감정들은 결국 같은 주파수로 공명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다.

햄릿의 고뇌와 오페리아의 비극은 셰익스피어 시대만의 것이 아니다. 현대인들 역시 수많은 생각과 선택의 순간에서 불안이라는 늪에 빠져 행동을 망설이고

때로는 오페리아처럼 고뇌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생각이 많아져 더해지는 것은 삶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햄릿처럼, 오페리아처럼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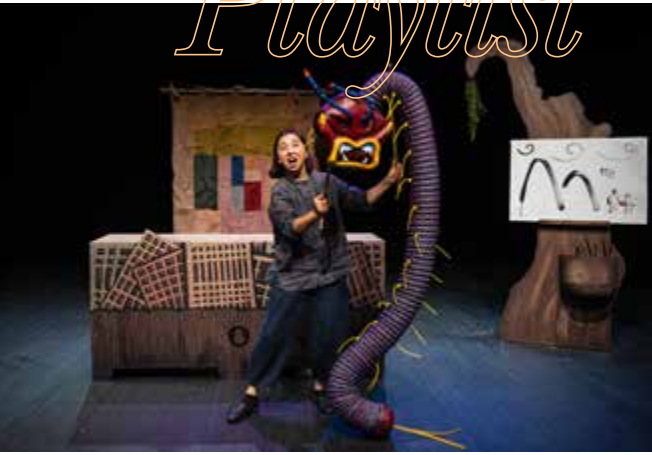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생각의 무게와 불안을 아름답고 시린 회화로 시각화한 밀레이와 카바넬의 그림들. 그 캔버스 앞에서 우리 안의 불안을 가만히 마주하고, 잠시 그 무게를 덜어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1. 존 에버렛 밀레이, 《Ophelia》, 1851. 캔버스에 유채, 76.2×111.8cm. 런던 테이트브라튼.

2. 알렉상드르 카바넬, 《비너스의 탄생》, 1863. 캔버스에 유채, 150×250cm. 오르세미술관.

Player's Playlist



인형극 '신통방통 도깨비'

: 최동석 연극 배우 / 극단 현장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작품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대형뮤지컬을 만나기도 하고 지역극단들이 제작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여러 공연장에서 접할 수 있다. 그 많은 작품 중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 바로 놀이하는 이모네의 인형극 '신통방통 도깨비'이다.

이 작품은 여러 파트의 스태프나 좋은 공연장이 없어도 공연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작품의 수준이 낮다는 건 전혀 아니다. 27년간 무대에서 연기 밥을 먹어 온 필자가 보기에 아주 수준 높은 수작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여러 역할을 1인극으로 소화해내는 배우의 연기와 작품 전체의 리듬과 템포, 거기다 전문 국악인의 연주까지!

좀 더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인형극 '신통방통 도깨비'는 우리 전래 도깨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가족극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무섭기만 한 도깨비가 아니라, 장난기 많고 정이 넘치는 우리 전통 도깨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옛이야기를 배우의 재치 있는 입담과 노래, 그림을 활용해 흥미롭게 들려준다. 관객의 참여 요소가 많아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은 공연이다. 전통문화와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학교나 가족 단위 관람

연극 '나의 아저씨'

: 최가인 첼로연주자 / 아트온기 대표



으로도 인기가 높다.

이 작품은 2026년 제27회 진주연극페스티벌 공식 초청작, 춘천인형극제, 서울, 대구 등등 국내 연극 페스티벌뿐 아니라 2024년 중국 상하이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연되기도 했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초청되고 있다. 어디서든 인형극 '신통방통 도깨비' 공연 소식을 접한다면 주저 없이 예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후회 없는 '참공연' 선택에 뿌듯함을 맛보실 것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라 입을 모았던 작품이었고, 나에게 더 와닿았던 건 바로 연극으로 재구성된 '나의 아저씨'이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며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과, 거칠고 차가운 삶을 버텨온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천천히 삶을 치유해 나간다.

나 또한 음악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대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닥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였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손을 잡아준 어른이 계셨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버텨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극 중 남자 주인공의 대사 한 구절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무대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외력과 맞서야 하는 순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내 안의 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나만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과 수없이 마주하게 된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 작품을 통해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는가.



그림책 '어제저녁'

: 강정아 음악 / (사)한국음악협회김해지부 지부장

매일 일만 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며 인생에서 가장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변을 돌아볼 여유보다 앞에 놓인 일들을 해내는 것이 우선이 되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어제저녁'을 오디오북으로 듣게 되었다. 무심코 듣기 시작한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고, 바로 책을 구매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바쁜 일상의 나를 잠시 멈춰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곁의 이웃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같은 공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을까'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관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

'어제저녁'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겨울 저녁,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시간을 담고 있다. 얼룩말, 개 부부, 참새, 양 아줌마, 여우, 산양, 오리 유모와 아키토끼, 생쥐 부인, 까망고양이, 흰토끼 등 각자의 공간에서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는 등장인물들이 사라진 텅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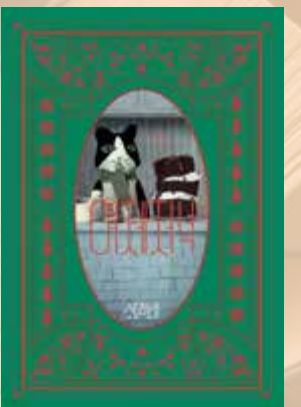
한 짝을 계기로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작품에서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이웃을 알고 있는 세계'였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과 아래층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잘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관계의 감각은 오히려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면, 이 책 속에서는 몇 호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이웃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졌는지, 그날 저녁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분주하고, 누군가는 다정하며, 누군가는 조금 엉뚱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다.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오늘의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을 건넨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다. 많은 플랫폼과 다양한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이 그림책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벌써 2026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지만,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주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따뜻한 그림책으로 추천한다.



2026 Season G

경남문화예술회관 하반기 기획공연



이희문 프로젝트: 오방신과
9. 3.(목) 19:30



뮤지컬 팬레터
9. 18.(금) 19:30, 9. 19.(토) 14:00, 19:00



다비드 바벡 & 아드리앙 몽도 <피아노 피아노>
10. 23.(금) 19:30, 10. 24.(토) 15:00



스윙 어게인
11. 11.(수) 19:30



연극 <더 드레서>
11. 20.(금) 19:30, 11. 21.(토) 15:00



Two Guitars: 박규희X박주원
11. 27.(금) 19:30



베이스 연광철 <겨울 나그네>
12. 2.(수) 19:30

2026
Season G

Gyeongnam
Great Art
Good Life

문의 1544-6711

2026 하반기 창원문화재단 공연 전시 라인업



3.15 아트홀

-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매일이 휴가
7.16(목)-10.11.(일) 3.15 아트홀 제 1~3전시실
- 오즈의 의류 수거함
8.27(목)-8.28(금) 3.15 아트홀 소극장
- 살로메
9.12(토) 3.15 아트홀 대극장
- SUPER! 수요콘서트
10.28(수), 12.30(수) 3.15 아트홀 대극장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1.27(금)-11.28.(토) 3.15 아트홀 대극장



진해아트홀

- 연극 <행복> 10.23.(금)-24.(토)
- 가족뮤지컬 <호기심딱지3> 10.31.(토)
-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11.21.(토)
- 파리나무심자가 소년합창단 초청공연 12.10.(목)
- 뮤지컬 <팬레터> 12.24.(목)-25.(금)



성산아트홀

- 2026 창원문화재단 소장작품전
7.08.(수)-07.26.(일) 성산아트홀 기획(지하) 전시실
- 클래식 캔버스 II 클로드 모네
7.18.(토) 성산아트홀 소극장
- 2026 문자문명전
8.12.(수)-8.23.(일) 성산아트홀 제1~7전시실
- 제10회 유익페스티벌 창원 2026
10.29.(목)-11.07.(토) 성산아트홀 대·소극장
- 2026 창원문화재단 컬렉션 展
12.02.(수)-12.20.(일) 성산아트홀 기획(지하)전시실
- 특집기획III 토요콘서트 특집
12.19.(토) 성산아트홀 대극장



창원의집/역사민속관

- 2026 창원의 집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
9.26(토) 창원의집 일원
- 2026 창원의집 낭만고택
9.18(금)-19.(토), 10.30(금)-31.(토) 창원의집 일원



진해문화센터(진해야외공연장)

- 생태의 집 한옥 전시
8.7.(금)-9.13.(일) 진해야외공연장
- 2026 진해 별밤 콘서트
8.22.(토) 진해야외공연장



창원조각비엔날레

-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공명장>
9.30.(수)-11.15.(일)
성산아트홀 전시동 전관 및 진해역 일원,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마산어시장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발레 백조의 호수 8.7(금) - 8.8(토)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대중 콘서트누리 정미조

Reboot the Stage G
오늘이 내일의 기억이 되는 곳
김해문화의전당

2026 GIMHAE SEASON

2026 김해문화의전당 시즌공연

gasc.gact.or.kr
김해문화의전당
gimhaeart



뮤지컬 팬레터 10.23(금) - 10.24(토)



국악 그루브 in 판소리 11.28(토)



클래식 Cinema Classics 12.4(금)



연극 더 드레서 12.11(금) - 12.12(토)



저녁의음악회 8.27(목), 10.29(목), 12.17(목)

CULTURE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품을 선물하세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문화비) 지출에 1:1 매칭, 최대 300만 원 지원

① 트랙. 함께하는 문화선물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선물	② 트랙.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 도서, 음반 선물
지원범위 ①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티켓 ② 예술단체(인) 초청을 통한 문화접대 프로그램 진행 시 공연·출연료 일부	① 국내 작가의 문학·인문·예술도서 (소설, 시, 에세이 등) ② 국내 아티스트의 음반
참여자격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기업(법인에 한함)	

문화기업업무추진비란?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고객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까지 추가로 손금을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선물은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 회장사
- BNK경남은행
- 부회장사
- NH농협은행 경남본부
- (주)다우링에너지
- (주)무학
- 범한산업(주)
- (주)씨티알
- (주)인산가
- 임경숙
- (주)한국아나세
- 현대위아(주)
- (주)화인테크놀리지
- 이사사
- 경남스틸(주)
- (사)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 경원벤티크(주)
- 고성오광대보존회
- (주)금아하이드파워
- (주)리베라관광개발
-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 신화철강(주)
- 원광건설(주)
- 창원대학교 음악과
- (주)화성G&(주)
- 대양산업가스(주)
- 청호산업(유)

- 가야BS(주)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 가야오페라단
- (주)거명인텍
- 거제시문화예술회관
- 경남개발공사
- 경남국제합창조직위원회
- (사)경남기독교문화원
- 경남도립미술관
-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 경남신문사
-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남오페라단
- 경원여객자동차(주)
- (주)경한코리아
- (주)고려이노테크
- (주)고려철강
- 고운가이드치과병원
- 고운선치과의원
- 고운치과병원
- 광득건설(주)
- 광신기계공업(주)
- (주)구구
- (주)국토보상원
-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 그린산업(주)
- 그림갤러리(주)
- (주)금강종합건설
- (주)금술개발
- (주)기산산업
- 김순태치과의원
- (유)김해공영
- 김해상공회의소
- 낙우산업(주)
- (주)남광디씨텍
- 남명산업개발(주)
- 남양매직(주)
- (주)느티나무의 사랑
- 늘푸른 요양병원
- 다몬틀링
- 당당한방병원 김해
- (주)대경
- 대경건설(주)
- (주)대길티에프
- 대방스페셜스틸(주)
- 대성정보시스템
- (주)대승엔지니어링
- 대신금속(주)
- (합)대신전기공업사

- (주)대중이앤에프
-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 (주)대호테크
- 더 스페이스 갤러리
- (주)덕광중공업
- (주)도원리사이클링
- (주)둥구기업
- 동성정공
- (주)동은화학
- 동진해금(주)
- 두남화학
- (주)두산중장비센터
- 디엠모빌리티(주)
- 디씨엠(주)
- 디케이이락(주)
- 라온산업개발(주)
- (주)마창대교
- (주)만보건설
- 명제한의원
- 몽고식품(주)
- 무림페이퍼(주)
- 문운수치과의원
- 미르치과의원
- 미조종합건설(주)
- 미즈맘 여성병원
- 범무법인미래로
- (재)봉림장학회
- (주)부경
- 부곡스파디움
- 부산교통(주)
- 부성자동차학원
- (주)부평디엔피
- (주)북성산업
- (주)사릭
- (주)산호수출포장
- 삼우금속공업(주)
- 삼원동관(주)
- 삼일정보시스템(주)
- (주)삼전건설
- 삼정기업
- (주)삼정터빈
- 삼흥열처리
- 삼흥테크(주)
- 상화도장개발(유)
- (주)서영시스템
- 선린자모의원
- (주)성우
- (주)성환금속
- 세라성형외과의원

- (주)세복
- 세아창원특수강
- (주)세양정공
- (주)세중씨엔지
- (주)세호
- 송죽전장
- (주)스모트로닉스
- 신광에이스전기(주)
- 신우푸드시스템(주)
- 신창기계(주)
- (주)씨노텍
- 아나파약국
- 아진기계
- (주)애드테크
- (주)에스
- (주)에스에이치엔엠
- (주)에이스코트
- 에코시스템(주)
- (주)엔지피
- 영광산업(주)
- (주)영신오토모티브
- (주)영일정공
- (주)영진테크
- (주)오곡산업
- 오션커뮤니케이션즈
- (주)옥산아이엠티
- 원광산업석재
- (주)웰템
- 유림건설(주)
-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 (주)이나인파워텍
- 이수디엔씨(주)
- (주)이우
- (주)이어더블유코리아
- 이피씨
- 인산죽염(주)
- 인화정공(주)
- 임진각
- (주)잇편
- (주)장생도라지
- (주)장성E.P.S
- (주)정문애드테크
- 제일레스트
- (주)좋은콘서트
- 중앙건설(주)
- (주)중앙금속
- (주)지엔티
- 진해성모병원

- 창원상공회의소
- 청아의료재단
- 최익수의원
- 추고쿠삼화페인트(주)
- 캠코 경남지역본부
- (주)케이조선
-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 (주)코텍
- 태민산업(주)
- 태영엔지니어링
- 테라사이언스(주)
- 티케이지태광(주)
- (주)포스텍
- 푸주옥
- (주)플라즈마홀딩스
- 피케이벨브엔지니어링(주)
- 하동 케이블카(주)
- 하이에어코리아(주)
-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소니전자(주)
- 한국정기공업(주)
- 한국제강(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한국태양유전(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주)한반도
- (주)한창테크
- (주)해드림엘피씨
- 해성메탈(주)
- 현대공업(주)
- (주)현대기업
- 현대로템
- (주)해동
- (주)호텔인터내셔널
- 흥기종합건설(주)
- 화영철강(주)
- 화이트치과
- (주)흥인코퍼레이션
- 흥일기업(주)
- JK컨벤션웨딩
- STX엔진(주)
- the큰병원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ship Service

찾아가는 공연 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문화공감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문화경영도서 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예술 동아리 지원 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지정기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 회원사의 메세나 활동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경남 메세나지’ 발간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시상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 후원매개 사업 ARTIS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30년의 믿음, 당신의 내일을 함께 보증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동행으로
경남의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신용보증
자금이 필요할 때
 든든한 보증지원

경영지도
교육·컨설팅·멘토링으로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금융복지
채무·재무상담으로
재기와 회복 지원

금융교육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디엠모빌리티 전시장 및 처미스센터 안내



창원 전시장 · 서비스센터 · 인증중고차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 (055) 280-8300

마산 전시장 · 서비스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 (055) 296-1004

진주 전시장 · 서비스센터
진주시 남강로 875 | (055) 743-1006

구미 전시장 · 서비스센터
구미시 아은로 672 | 054-443-9940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디엠모빌리티

SUNGHYUN
SH&M

(주)에스에이치앤엠

Shoes OEM 생산전문



legero

jalas®

uvex

Baldest

superfit

GORUCK

HECKEL
PERFORMANCE WITH STYLE

KOLON GLOBAL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1로12번길 39(송정동)
T.051.208.4013 F.051.208.4014

◆해외현지법인

1. SUNGHYUN JOINT STOCK COMPANY

소재지: BINH DUONG INDUSTRIAL ZONE, VIETNAM

2. SGX CO., LTD.

소재지: SONG THAN 2 INDUSTRIAL PARK, DIAN CITY, VIETNAM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지역을 가슴 뛰게 할 생산적 금융, BNK 경남은행이 함께합니다

내일을 향한 도전과 혁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경남·울산의 미래성장을 이끌어 가기에
지역 금융허브로 함께 해 온 BNK 경남은행이
미래성장 및 특화산업 구축을 위한
생산적·포용 금융을 시작합니다.

성장과 포용이 함께하는 금융 +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금융

부울경 지역형 미래성장 기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지원

AI-Generated Content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경남은행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MECENAT
with you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